



그리스의 신화를 보면 제우스가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대홍수를 일으키는 대목이 있다. 지상의 인간들이 너무 사악해 졌다고 생각한 제우스는 그들을 파멸시키기로 결심하고 역수같은 비를 뿌리는 동시에, 자신의 동생인 바다의 신을 불러 육지를 물로 뒤덮어 버리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대지와 산들이 물속에 잠겼지만, 다행히 파르나수스 산의 정상만은 마른 부분이 조금 남아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던 프로메테우스는 자신의

부부가 살아나는 장면이 유사하다. 그래서인지 고고학자들은 두 이야기가 거의 같은 무렵의 일로서 청동기 말기의 사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홍수와 관련한 이야기는 두 가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의 모든 나라가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인도의 신화에도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창조의 신 브라만은 세계를 지키는 신 비슈누를 물고기로 변하게 한 다음, 인류최초의 조상인 마누왕에게 접근시켜 홍수로부터 그를 구해 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마누왕은 물고기의 지시에 따라 배를 만들고, 물고기의 안내로 히말라야 산으로 피난을 가서 살아남는다는 줄거리다.

또한 바빌로니아 지역에 살던 수메르인들의 점토판에도 홍수에 관한 사실적 기록이 나타나고 있으며, 길가메시 이야기에도 홍수에서 유일하고 살아남는 우트나피스탐의 회고담이 실려 있다. 그 밖에 아메리카 인디언들이나 과테말라의 인디오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전설에 그와 흡사한 이야기들이 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 큰 홍수가 나서 이 세계가 모두 바다가 되어 모든 생물과 인간이 멸망하였으나, 그 중에 큰 나무를 타고 높은 산에 표류한 오누이만 겨우 살아 남았다”는 전설이 있다.

이처럼 홍수에 관련한 이야기들은 한 개인의 죽음에 그치는

물과 종말

아들인 데우칼리온과 조카인 피라(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와 최초의 여성인 판도라의 딸)에게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식량을 넣어 홍수에 대비하고 있으라고 일러 준 터이었다. 그리하여 대홍수 뒤에도 그들은 살아남아 인류 최초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에 “최 많은 인간들의 추악한 면을 본 여호아는 인간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였고 인간을 지상에서 쓸어버리러” 대홍수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온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가족들과 함께 살아나는 장면과 그리스 신화의 데우칼리온과 피라

이 운 형

(경기대 교수, 철학)

것이 아니라 인류전체의 파멸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거기에는 주목할 만한 교훈이 있다.

그것은 대홍수라는 천재지변의 원인을 인간의 윤리적 붕괴와 결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거나 심지어 살해하는 소식을 듣고는 “세상 말세야”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뿐만 아니라, 배꼽을 드러내 놓고 있는 처녀들의 발랄한(?) 모습을 보며 혀를 끌끌차면서 “세상 다 되었어”라고 걱정하는 할아버지들의 근심어린 얼굴을 만난적이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알게 모르게 인간의 윤리감각의 실종, 수치심의 상실 등은 곧 인류의 말기적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신화들이 윤리적 붕괴의 현상들을 곧 닥쳐올 천재지변의 조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물론 우리는 과거 폼페이와 니미의 벽에 쓰여져 있었던 “요즘 젊은이들은 되먹지 않았다”라는 낙서를 근거로 ‘어느 시대이고 윤리의

상실이 없던 시대는 없었다’면서 윤리적 상실은 별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윤리감각의 상실은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외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붕괴시키는 일에도 한 몫 거든다고 말한다면 과연 과장된 이야기일까? 윤리의식이 마비되었다고 해보자. 어느 남자가 만나서 인생이나 교육문제, 혹은 물의 오염문제에 대해 토론하다가, 시간도 많이 남고 해서 골프장과 러브호텔을 찾았다. 그런데 그 골프장과 러브호텔은 산을 하나 깎아서 세운 곳 이었고, 그냥 들어가기도 뭐해서 맥주를 한잔 마셨는데, 그 술은 지하 수백미터 암반에서 퍼낸 지하수로 만든 것이었다.

산이 무지막지하게 깎겨나가고, 좋은 맥주를 만들기 위해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마구 퍼내기만 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말 안해도 뻔하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시 1-17에 이런 말이 나온다.

“40년 세월 무지개가
나타나지 않게 되고
40년간은 날마다 나타나게
되며
불모의 땅은 갈수록
메마르고
또 어느 날엔가 대홍수가
나리라.”

우리는 노스트라다무스가 경고한 1999년 7월 이후의 비참한 상태가 사실로 오리라고 믿지 않는다. 아니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초라한 들꽃들이 현란한 색깔의 종이꽃들 보다 더 아름답고, 더 필요하다는 점을 깨우치지 못하는 한, 인류의 멸망은 언젠가는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지구의 대재앙은 멀리서부터 오지 않는다. 어릴적 벌거벗고 물고기를 쫓던 시냇물에 폐수를 몰래 버려 시궁창으로 만드는 순간, 밤하늘의 별들을 헤아리는 어린 시절의 맑은 눈동자를 가리는 순간부터 파멸은 시작될 것이다. ☸